

변화의 바람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네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네가 없는 곳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기쁨이 없는 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네가 모르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무지의 길을 지나 가야 한다/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무소유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너 자신이 아닌 것에 가달기 위해서는/네가 아닌 길로 가야만 한다/네가 모르는 것이 네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네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며/네가 있는 곳은 네가 없는 곳이다. (중략)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망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다/모두 괜찮아질 것이고/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류시화의 책 '마음챙김의 시'에 나오는 T.S. 엘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 가운데 일부다. 달라져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다.

#.36세 야당 대표. 백팩을 매고 '따릉이'를 타고 출근 하는 낯선 모습. '이준석 바람'이 세간의 화제다. 설마설마했던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경제, 사회, 문화, 정보기술(IT)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10개국(G10) 위상에 걸맞다. 하지만 유독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 당쟁의 반복,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한다. 신선한 야당 대표가 등장한 배경이다. '꼰대'들도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2030세대, MZ세대들의 '공정'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전쟁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30대 야당 대표의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이정표는 정해졌다. 변화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 표를 얻지 못한다.

#. 인간에겐 식탐과 욕심이 있다. 배가 부르는데도 앞에 있는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식탐이다. 배가 불러도 음식을 탐하는 동물이 사람이라고 한다. 깊은 골짜기(谷)에서 끝없이 흘러내려 오는 물을 자신의 작은 입을 벌려 다 마셔보겠다는 마음이 욕심(慾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도, 화

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엄연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가상화폐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20조원을 웃돌았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인정이자 변화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운 것이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제한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곳만 영업할 수 있다. 신고요건도 까다롭다. 먼저 이용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1금융권)과 연계해야 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된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6개월 유효기간이 주어졌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20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선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는 거래소가 10개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턱대고 뛰어 들었던 투자자는 긴장해야 한다. 식탐과 욕심을 버려야 자신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시청자 볼모로 잡는 콘텐츠 갈등



김지수
김 나 인
(산업부)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LG유플러스의 OTT채널에서 CJ ENM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송출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사업자들은 '네티'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비상식적인 금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J ENM은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CJ측은 IPTV와 OTT를 별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CJ

ENM측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 tv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 '시즌'에서도 실시간 방송중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KT 또한 현재 CJ ENM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G유플러스처럼 실시간 방송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입자 선정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KT와의 협상결과는 앞으로의 IPTV와 PP간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상 시청환경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콘텐츠업체들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요금을 내야 하고 통신사들은 자사 OTT는 IPTV서

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도 초유의 '블랙아웃'으로 결국 U+모바일tv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개별 사업자간 협상으로만 산정하는 콘텐츠 가격의 불안정한 기준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정부도 CJ ENM 채널 공급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OTT 규율법이 부재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 크게는 콘텐츠 가격정책 등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2의 블랙아웃' 사태를 막을 수 있다.

/silknii@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이면도로에서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48년생 죽은 나무에 미련을 갖지 마라. 60년생 재물로 인한 집착과 분별 심을 구분해야 발전. 72년생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다. 84년생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
- 소** 37년생 일어나 녹차 잎을 우려내서 마셔본다. 49년생 일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61년생 좋은 결과를 보려면 신중해야 올바른 선택이 될 것. 73년생 쉽게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5년생 소우주인 인간에게 하늘은 말이 없다.
- 호랑이** 38년생 친구를 생각하니 반가운 전화가 온다. 50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2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니 적당히. 7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6년생 생각을 바꾸면 앞에서 길이 보인다.
- 토끼** 39년생 금상첨화의 겹경사가 온다. 51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 63년생 귀신은 다 듣고 속으로 품는 생각까지 환히 보고 있다. 7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 87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염** 40년생 인생은 짧지만 시간은 영원하다. 52년생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64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다. 76년생 경험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88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 뱀** 41년생 눈비가 몰아쳐도 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53년생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심드렁한 날. 65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7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89년생 기쁨이 해갈되듯 일이 풀려나니 열심히.
- 말** 42년생 청정한 바람으로 활 생기가 돋는 날. 54년생 가정의 화목이 근본일 텐데. 66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78년생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꽤 길다. 90년생 음식물을 의지하지만 폭식 과식은 금물이다.
- 양** 43년생 새로운 희망을 책에서 얻다. 55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67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었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79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9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외출하자.
- 원숭이** 44년생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보자. 56년생 지나간 일들로 곤란한 일이 생기니 서류를 챙겨라. 6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는다. 80년생 피곤한 나 그녀에게 갈 길은 멀다. 92년생 까마귀는 눈에 백로도 갈 수 있다.
- 닭** 45년생 뒤늦게 부부 사이가 빠지면 된다. 5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겁다. 69년생 명예도 실속도 챙기는 날. 81년생 우물 속 개구리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죽상이다. 93년생 매력 있는 이성의 유혹이 있으니 고민.
- 개** 4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중시 있게. 58년생 외국여행은 지출이 많아져 후회 발생한다. 70년생 밝은 꽃이 피었으나 내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82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4년생 어디를 가더라도 신뢰받는다.
- 돼지** 4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미리 쇼핑을 하는 것도 한 방법. 59년생 공들인 탐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71년생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83년생 계획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95년생 누군가의 성격이 팔자라는데.



김상회의四季 안전 위협하는 키보드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보는데 요즘 키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사고가 잦다는 것이다. 키보드는 2개나 3개의 바퀴가 달린 발판에 긴 손잡이가 있는 레포트 기구이다. 한쪽 발로 밀어서 올라타고 달리는데 속도가 제법 빠르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이는데 길을 걸어가다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뒤에서 갑자기 스치듯 썩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이고 앞에서 달려올 때는 어느 쪽으로 피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럽다. 키보드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고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아서 운전자들이 피해 가기 어렵다. 고라니처럼 아무 곳에서나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 키크라니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셈이다.

작년 통계를 보면 키보드 교통사고가 무려 1,000건이 넘었다. 키보드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사람이 다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다. 편하게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도구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니 씁쓸한 일이다.

엔제부턴가 공유 키보드가 늘어나면서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키보드를 사용한 뒤에 아무 곳이나 주차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사람들이 바빠 다니는 인도 한복판은 물론이고 도로에 던져놓고 가버리기도 한다. 길거리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키보드는 길을 때 방해가 된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보기에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키보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용하면 생활에 유용한 도구이다. 그런 도구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줄여주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1			2			
8			4	5				
		6		2				
	9	8			4		3	
	3					6		
6		1			2	5		
			5		9			
			8	6				5
	6							

	8				4			
		2		1	3			8
								1
6	7			3				
	4		9		1		3	
					7			5
	6							
5			1	4		7		
			6					9

정답

4	8	6	9	2	1	5	9	1
9	1	1	4	9	8	9	2	6
2	9	9	6	1	9	1	8	4
6	9	2	8	9	4	1	1	9
1	9	8	1	9	6	4	9	2
9	1	4	9	1	2	8	6	9
1	4	9	2	8	9	6	9	1
9	6	1	9	4	9	2	1	8
8	2	9	1	6	1	9	4	9

9	6	1	9	8	9	4	2	1
9	8	1	2	4	1	6	9	9
9	4	2	1	6	9	1	9	8
4	9	8	9	1	2	9	1	6
1	9	1	9	6	8	4	2	1
1	2	6	8	9	4	9	1	9
2	1	4	6	9	8	1	9	9
8	9	9	9	1	1	2	6	4
6	1	9	4	2	9	9	8	1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821호	